光日春秋

개기일식이 주는 삶의 지혜

오덕성
우송대 총장

올해는 유난히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느낌이다. 한밤중에도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아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어젯밤도 더위를 참지 못해 뒤척거리다 침대에서 일어나 찬물을 마시고 집 안을 서성거리다 소파에 앉았다. 다시 잠을 청하려다 문득 지난 날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상당히 힘든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희미해지고 아름답고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있다. 그 시절을 힘들게 했던 어려운 일들, 그 일을 마주치면서 겪은 심적인 갈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힘들었던 유학 시절이 떠올랐다. 논문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아 막막함과 불안함 속에 지내던 시기였다. 며칠씩 밤을 지새우며 내용을 고민하고 작성했지만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거치며 공들여 쓴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지워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과연 내가 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주말, 머리를 식힐 겸 가족과 함께 교외 호숫가에 다녀왔다. 유난히 오리를 좋아하는 두 딸과 함께 오리들이 한가로이 떠다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너희는 참 평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물속을 바라보니 물 위에 조용히 떠 있는 듯 보이던 오리들이 사실은 물 아래에서 쉼 없이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애씀이 있다는 것, 성과라는 것이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닌 여러 과정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자신감이 바닥까지 내려갔던 당시엔 박사학위를 끝내지 못하고 귀국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지만 그것은 성취의 과정이었고 그만큼의 애씀과 준비가 필요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교수님의 냉정하지만 날카롭고 세심한 지도, 주변 동료들의 도움, 가족의 응원이 결국 나를 성장시킨 동력이었다. 끝내 그 시간을 견뎌 학위를 끝내고 전공 분야의 학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고 그 후에도 여러 번의 힘든 고개를 넘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생의 자산으로 남아있다.

얼마 전 '개기일식과 삶'의 비유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자연이 주는 교훈을 얻었다.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며 태양을 잠시 가리는 현상으로서 잠깐 동안 하늘은 캄캄해지고 태양이 사라진 듯한 상황이 되어 버린다. 오죽하면 옛날 사람들은 세기의 종말을 보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했을까. 실제로 태양은 달보다 400배 크고 방출되는 에너지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렬함에도 우리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태양의 존재가 없어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개기일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몇 분이 지나면 다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고 밝은 대낮이 돌아온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달의 모습은 희미해지다 못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난관이 태양을 가리는 달의 모습과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개기일식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시기마다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좋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응원하는 가족, 동료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득 '은혜'라는 제목의 노래가 떠오른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돌이켜보면 위의 가사가 가슴에 와닿고 머리가 끄덕여진다. 내 삶에는 개기일식과 같은 순간이 있었고 지금 내 앞을 가리는 일들로 그 뒤에 감춰진 빛을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왜 나만 혼자 고생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주는 크신 은혜와 좋은 분들과의 사귐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개기일식이 주는 삶의 지혜'는 지금의 어려운 문제 뒤에는 밝고 힘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혹시 그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무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해준다. 그와 함께 햇볕처럼 따뜻한 정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종교칼럼

다시 없는 하루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 때 또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느낀다. 눈을 뜨고 숨을 들이 마시고 몸을 움직이며 기지개를 켜본다. 습관처럼 일어나 세수하고 스페인어 기도서를 들어 기도하고 준비된 제대에서 미사를 봉헌한다. 아침 식사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광산구 주민회관으로 나선다.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매일 다가오는 일상이 그냥 그렇게 이어지는 당연한 것일까? 아니다. 그냥 일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지, 오늘이라는 하루는 진짜 다시 없는 하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서로에게 건네는 미소 등의 모든 행위는 다시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 다시 없는 순간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의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4)고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이 말씀은 걱정을 없애자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오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초대하고 있다. 오늘이라는 다시 없는 하루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유일한 하루이며 그 하루를 살아가는 다시 없는 존재라는 나의 존재성을 강하게 느껴본다. 우리는 종종 삶을 '반복'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월요일이 오고 다시 화요일이 오고 또 주말이 오고 지나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내 삶의 흐름과 일상을 바라보면 이 하루와 순간들은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매일이 똑같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석양의 태양은 붉다가도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자주 만나던 사람의 모습은 또한 어제와 다르고 그를 대하는 내 마음도 또한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어제와 같지 않다는 것이고 결국 새롭고 다시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나는 다시 없는 존재로 다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라는 것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단 한 번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얼마나 고귀하고 경이로우며 아름다운 사실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하루를 때로는 그냥 무심히 흘려보내 버린다. 익숙함에 묻혀 소중함을 잊고 바쁨에 쫓겨 의미를 잃어버리곤 한다. 사람과의 만남도 형식이 되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비교와 불만이 앞설 때가 많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문득 '이게 아닌데…'하며 후회가 밀려오기도 한다. '그때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그 사람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것을…'.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지나버린 하루도 다시 살아낼 수 없다. 습관적으로 흘려보낸 하루를 마주하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외쳐본다.

빛을 바라보고 비를 온몸으로 맞아보며 바람의 흐름을 느끼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마주하고 정성이 깃든 음식을 맛보며 조건 없이 사랑하고 무작정 기다려주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와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신 삶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병과 악으로 지친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굶주리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셨고 작은 이들을 만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빛과 희망이 되셨다. 다시 없는 존재의 삶을 보여주셨고 하루의 삶을 다시 없는 하루처럼 그리고 만나는 이들을 모두 다시 없는 존재처럼 대하셨다.

그렇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대했는지에 따라 그 하루는 세상의 빛이 될 수도 어둠에 묻혀버릴 수도 있다. 경쟁과 효율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다.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며 더 나아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진정한 평화도 기쁨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놓쳐버린 시간들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작은 친절, 진심 어린 대화, 함께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람답게 하고 하느님을 닮게 한다. 다시 없는 존재로 다시 없는 하루를 살아내보자. 감사함과 소중함으로….

기 고

'괴물'에 의한 옥살이

황광우
작가

우리의 벗, 조국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안 그래도 힘든 여름 징역인데 이 폭염을 어찌 견디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풀 한 포기 없는 감옥에 뙤약볕이 내리쪼이고 있습니다. 붉은 돌담은 화로처럼 달아오르고, 방 속의 똥통은 끓습니다. 밤이면 빈대, 벼룩이 살을 뜯습니다'

지금 여름 징역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 청년은 '상록수'의 저자 심훈이다. 경기고를 다니던 중 심훈은 3·1운동에 가담한 죄로 서대문구치소에 투옥되었다. 옥고를 치른 분이었기에 그의 기도는 남달랐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人磬)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그후 100년이 지났다. 2019년 7월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처럼 위대한 발견이나 한 양, 대한민국은 '거짓말의 나라'라고 떠들고 다니는 한 지식인이 나타났다.

"일본이 토지를 수탈했다구요? 그런 사실 없어요. 일본이 쌀을 강탈했다구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일본이 위안부의 성을 착취했다구요? 여성의 현명한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세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구요? 증거가 있나요?"

지식인의 이름은 이영훈이다. 알고 보니 이영훈은 극우의 대변인이었다. 그가 쓴 '반일 종족주의'는 읽기가 참 괴로웠다. '거짓말과 사기가 난무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니! 정치계가 거짓말의 난장판이고, 학계가 거짓말의 제조공장이며, 사법부마저 거짓말의 온상이란다. 나는 이씨가 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지 의아했다. 왜 한글로 글을 쓰고 왜 국어로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때 이영훈을 단죄하고 나선 이가 조국이었다. 성착취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영훈을 향해 조국은 '매국 친일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조선·2019.8.5) 정의 앞에서 좌고우면하지 않은 이가 조국이었다. 겁이 없는 지식인이었다.

한 달 후였다. 2019년 9월 9일, 장관 취임식을 가진 그날부터 조국은 윤석열의 먹잇감이 되었다. 극우들이 성경처럼 읽는 책을 '구역질난다'고 했으니 그는 필시 '불경죄'를 범한 것이다. 한술 더 떠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니 '축생인 주제에 무엄하게도 검찰을 모독한 죄'를 범한 것이었으리라.

9월 10일, 검찰은 동생 집을 가택수색했다. 9월 23일, 마침내 조국의 집을 덮쳤다. 17시간 털었다. 딸의 일기장까지 털었다. '지딴것이 머시라고 건방지게 검찰 해체를 획책한 죄'를 저지른 대가였다. 10월 3일, 부인이 소환당했다. 조카가 구속되었다. 동생이 구속되었다. 일가가 날아갔다. 세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멸문지화', 이 모든 일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해마다 아테네 청년들을 잡아먹는 괴물이 있었다. 황소의 머리를 가진 미노타우로스. 이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한 사나이가 미궁에 뛰어들었다. 테세우스이다. 검찰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에 나선 조국을 설명하는 이야기로서 테세우스 신화는 제격이다.

윤석열은 미노타우로스였다.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내가 희생당하는 것쯤은 괜찮다. 하지만 나로 인하여 형제들이 수난을 당하는 것은 차마 볼 수가 없다. 괴물은 조국의 딸을 난도질하였다.

마침내 괴물을 퇴치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미궁을 빠져나오지 못하다 연인 아리아드네가 준 실을 따라 미궁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조국의 생환을 도와줄 우리 시대의 아리아드네는 없는가?

노회찬의 유세장에서 함께 악수하던 조국, 빙그레 웃던 그의 순진무구한 모습이 그립다. 노회찬을 추모하기 위해 해마다 마석의 공동묘지에 달려왔던 조국이 올해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社說

도 넘은 외국인노동자 집단괴롭힘 엄단해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학대가 도를 넘고 있다.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전남에서 이런 학대가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

지난 2월 영암의 공장형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인 노동자가 사장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극단적 선택을 해 파장이 인데 이어 이번에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꽁꽁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스리랑카 노동자의 영상이 퍼지면서 인권 유린 비판이 일고 있다.

58초 분량의 영상에는 스리랑카 노동자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를 보며 웃으며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 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하자 경찰과 노동당국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시작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한 사업장의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뿌리내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의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와 노동당국은 차제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전남을 찾은 이들이 좌절의 악몽을 꾸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점검시스템 허점 드러낸 색깔차별 소비쿠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인권감수성 부족' 질타를 받은 광주시의 '색상차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문제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카드 색깔에 따라 소득이 노출됨에 따라 겪을 소비자의 수치심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전의 관행에 따라 별 생각 없이 카드를 제작해 배포한 것이다.

색깔차별 소비쿠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물론 은행 관계자 누구도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직사회 내부의 점검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금액(소득)별로 3종류의 색상 구분을 둬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빨간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으로 하고 하단에 금액을 명시해 배포했다. 제작 과정에 관계기관인 광주시와 행정안전부, 구청, 카드 제작사인 광주은행 관계자가 참여했는데 누구도 색깔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실무자들은 배부 과정에서 있을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기존 상생카드와 같은 금액별 색깔 차별 구분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배부가 시작되자 인권감수성 부족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의 질타까지 있자 광주시는 공무원을 동원해 부랴부랴 밤샘작업을 통해 빨간색 스티커를 카드에 붙여 다시 배부했다. 그렇지 않아도 수해복구 작업에 동원돼 지친 광주시 공무원들은 전국적인 망신까지 사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곧바로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공무원 노조는 혹사한 직원들에게도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직원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무선에서 결정한 일이라는 얘기가 들리는 만큼 시장에게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 이번 사건을 내부 점검 시스템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無等鼓

위헌 정당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정치권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2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해제요구안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두둔했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등 내란에 동조하거나 선동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실제 2014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국민의힘의 내란 책임을 따지고 있지만 정작 광주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내부 투표를 통해 무소속 심창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 광주시의회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애초 외부에 '투표 없는 합의추대'로 발표했지만 정작 은밀하게 투표를 진행했고 민주당이 무소속·국민의힘 후보에 패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국민의힘, 1명은 무소속이다. 의원 수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내준 셈이다.

광주는 비상계엄을 막아낸 '한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과연 광주시의회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는 정당의 부위원장이 어울리는지에 대한 물음에 광주시의회가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면 엄중한 정치적 책임도 뒤따라야 하며, 그 책임은 혹독할 것이다. /오광록 서울본부 부장 kro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